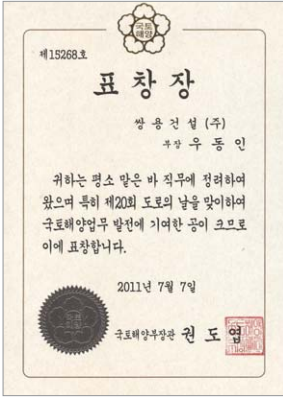


## ‘제20회 도로의 날’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 수상



우리회사 토목기술부 우동인 부장이 7월 7일 서울교 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 20회 도로의 날’ 기념식에서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92년부터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인 7월 7일을 기념해 제정된 ‘도로의 날’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 속에서 도로교통인들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해 도로교통관계자 1,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토목구조 설계분야의 전문기술자로서 도시시설물(교량 등)의 설계를 담당하는 우동인 부장은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 설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물류비용 절감, 도로의 품질향상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베트남 해안도로 공사 수주

우리회사는 8월 11일 베트남 교통부가 발주한 해안도로 공사를 미화 약 4,730만 달러(한화 511억 원)에 단독 수주했다. 베트남 교통부가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재원으로 발주한 이 공사는 태국 방콕 ~ 캄보디아 ~ 베트남 카마우시를 연결하는 ‘남부해안 연결도로 프로젝트(Southern Coastal Corridor Project, SCCP)’ 중의 하나로 총 13개 업체가 경합을 벌인 가운데 우리회사가 기술력과 금액의 적정성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수주하게 됐다. 우리회사의 공사구간은 베트남 남부 투바이(Thu Bay)에서 켄(Kenh)을 잇는 해안도로 약 31km로 36개의 교량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우리회사는 1995년 베트남에 첫 진출한 이래 하노이타워 호텔, 소피텔 프라자 하노이 호텔 등 고급 건축물과 다미엠을 시공한 바 있으며, 올해는 말레이시아,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등의 해외로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 다만사라 시티 레지던스 수주

우리회사는 8월 4일 말레이시아에서 최고급 서비스 아파트인 ‘다만사라 시티 레지던스(Damansara City 2 Parcel 1)’ 공사를 미화 약 1억 4,500만 달러(한화 1,538억 원)에 단독 수주했다. 발주처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등에서 고급 주택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현지 유력 부동산 투자 개발회사 구오코랜드(GuocoLand)의 자회사인 다만사라 시티이다.

쿠알라룸푸르 신형 변화가인 다만사라 하이츠(Damansara Heights)에 들어설 ‘다만사라 시티 레지던스’는 30층 2개 동 총 268가구 규모의 초호화 서비스 아파트로 110.99㎡(34평) ~ 647.3㎡(196평)까지 총 12개 타입으로 구성됐다. 단지에는 야외 바비큐 파티를 즐길 수 있는 풀사이드 가든과 수영장, 대연회장 등 5성급 호텔 수준의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각 세대 침실과 거실은 쿠알라룸푸르의 뛰어난 전망을 볼 수 있도록 한면이 전면유리로 설계됐으며, 완공은 2014년 3월 예정이다.

한편 우리회사는 말레이시아에서 지난 6월 프랑스의 세계적인 건축가 장 누벨이 설계한 ‘르 누벨 레지던스(LE Nouvel@KLCC)’ 공사를 미화 약 1억 2,700만 달러(한화 1,365억 원)에 단독 수주하는 등 지금까지 와이키키 콘도미니엄, 샤 알람 타워센터, 사라와크 회교사원, 쿠칭 실내 체육관, 셀라양 병원, 수아사나 센트럴 콘도미니엄, 더 핑가와 등 총 미화 7억 4천만 달러의 공사를 수행해 왔다.

## 운문댐 비상여수로 건설공사 턴키 수주

우리회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7월 26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운문댐 비상여수로 건설공사를 약 975억 500만 원(우

리지분 24%, 212억 7,300만 원에 턴키로 수주했다.

이 공사는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운문댐 일원에 토목, 건축, 전기, 조경, 정보통신 및 소방 공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51개월이다.

### 싱가포르 W호텔 명품 부띠끄 센터, BCA 그린마크 플래티엄 인증



#### BCA GREEN MARK

우리회사가 싱가포르에서 시공 중인 W호텔 명품 부띠끄 센터 '키사이드 아일랜드 (Quayside Isle)'이 5월 19일 싱가포르 건설청으로부터 BCA 그린마크 최상위 등급인 플래티엄 인증을 받았다. 2011년 1월 설계

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디자인 & 빌드(Design & Build) 방식으로 단독 수주한 W호텔 명품 부띠끄 센터 '키사이드 아일랜드'은 햇빛을 받는 건물 전면에 열전도율이 낮은 이중 특수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실내 온도 24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방 전력량이 일반 건물의 약 55%에 불과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우리회사는 2007년 5월 싱가포르 오션 프론트 콘도미니엄이 주거건물 최초로 그린마크 플래티엄 인증을 받았으며, 2010년 5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호텔부문에서 W호텔(W Singapore Sentosa Cove)이 플래티엄 인증을 받은 바 있다.

### 도곡 동신아파트 리모델링, 내진 성능 보강 및 복수층 수직 증축 해법 제시

우리회사는 지난 5월 강남 최초의 단지 리모델링 프로젝트인 도곡 동신아파트(5개 동 384가구)를 신축 아파트 내진 기준인 진도 6보다 안전한 진도 6.5~7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아파트로 리모델링했다.

1978년 완공된 이 아파트는 벽체, 기둥 및 보의 양을 늘려 내



진성능을 높이는 대신 모든 층 주요 벽체 상부와 하부에 가로, 세로 1m, 두께 1.2cm의 철판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 진동 흡수 장치인 댐퍼를 시공하는 제진기술을 적용했다. 철골조 건물에 사용되는 철제 제진 방식이 콘크리트 아파트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기존 바닥과 벽체 일부를 경량 자재로 대체해 건물 하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1개 동 1층을 필로티로 바꾸고, 1개 층을 수직 증축했다. 이 공법에 건물 바닥 기초파일 보강 등을 추가하면 복수층 수직 증축도 가능해진다. 신축 아파트보다 안전한 내진설계와 건물 하중 경량화 공법 등을 통해 최근 안전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직 증축의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을 신설해 주차대수는 181대에서 414대로 약 2.3배 늘었고, 각 동의 전면 지하 1층에는 지상에 노출되는 부분 필로티 구조를 적용해 자연 채광을 극대화했다.

한편 우리회사는 단지 전체 리모델링 1호 사업인 방배동 쌍용 예가 클래식(옛 궁전아파트)을 시작으로 2호 당산동 쌍용 예가 클래식(옛 평화아파트), 3호 도곡 동신 예가에 이어 올해 말과 내년에는 오금동 아남아파트와 염창동 우성아파트 등 4, 5호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최초의 벽식 아파트 리모델링 사례인 마포 현석동 강변 호수아파트를 시공 중이고, 국내 최대 규모인 3,870가구의 수원 동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지하철 913공구 준공 기술세미나’ 개최



‘서울지하철 913공구 준공 기술세미나’가 지난 6월 27일 본사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술세미나에는 ‘고속터미널 정거장 탄생비밀’,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 건설공법’ 및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공 중 주요 VE 사례’라는 주제의 설계분야 발표와 ‘고속터미널 정거장 시공사례’, ‘기타 시공사례’ 및 ‘안전·환경관리 현황’에 대한 시공분야 발표가 있었다. 금번 기술세미나를 통해 서울지하철 913공구 현장의 설계 및 시공과 관련된 기술자료, 경험 및 노하우를 임직원들과 공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지하철 913공구는 15cm의 기적, 세계 최초로 TRcM(Tubular Roof construction Method) 공법과 CAM(Cellular Arch Method) 공법을 복합 적용한 프로젝트로 2009년 대한토목학회의 ‘올해의 토목구조물 대상’ 및 영국토목학회의 ‘브루넬 메달’을 수상한 바 있다.

## ‘2011년 재해예방 및 VE 워크샵’ 개최

‘2011년 재해예방 및 VE 워크샵’이 본사 10층 대회의실에서 토목사업본부 김정호 부사장을 비롯하여 본사 및 현장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5일에 개최됐다. 금번 워크샵은 현장에 적용 또는 적용예정인 VE 사례에 대한 공유 및 전파를



통해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기술안전과 쌍용안전 SYSTEM 정착을 위하여 안전 관련 정부정책과 안전관리 현안을 토론했고,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목표재해를 달성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특히, 올해에는 재해 예방 및 VE 워크샵이 함께 진행돼 우리회사의 기술력, 노하우 및 아이디어를 통한 VE 사례를 안전과 접목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VE 적용현황 및 향후 활용방안, 타사 동향, 미래전략(곽동구 사장, (주)KCMC)과 ‘KOSHA 18001과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소장의 역할(고영욱 부장, 한국산업안전공단)’이라는 주제의 초청강연이 있었으며, ‘설계변경을 통한 VE 사례’ 및 ‘시공VE 현장 적용사례’ 발표, 패널토의, 결의대회 및 총평의 순으로 워크샵이 진행됐다.

토목사업본부 김정호 부사장은 “VE의 목표는 원가절감 및 시공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 및 시공 개선안의 발굴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VE 주관 부서뿐만 아니라 현장 및 본사의 모든 임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토목사업본부는 재해예방 및 VE 워크샵을 앞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2011년 제4회 사면재해저감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움’ 참가 및 논문 발표

한국지반공학회가 후원하고 한국 낙석 및 산사태 방재연구단



과 일본 토목연구소(일본 최대의 건설기술 연구수행기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1년 제4회 사면재해저감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이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회사 토목사업본부 조현 상무와 토목기술부 박부성 부장이 참석했으며, 토목기술부 윤성필 사원이 'Case Study on Stability Analysis of Phyllite Rock Slopes in National Road Construction'이란 주제의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참가자들로부터 우리회사의 우수한 설계 및 시공 기술력 대한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또한 전 낙석 및 산사태 방재연구단 단장이며 공동의장인 상지대 이승호 교수를 비롯해 대학교수, 정부출연연구소 등 사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기술동향 및 연구성과를 상호 공유했다.

행사 첫날에는 '산사태나 암반 붕괴에 의한 재해 및 대책', '산사태 조사 및 계측', '사면의 안정성 평가'란 주제의 강연 및 연구발표와 그룹별 토론회가 개최됐으며,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대규모 산사태 및 화산 발생 현장을 방면해 사면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방안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본 심포지엄은 산사태 및 사면 연구 기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으며, 사면 관련 최고 전문가들이 그간의 연구성과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사면재해 저감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2011년 제4회 지반공학 한일 공동 심포지엄'

#### 참가 및 논문 발표

한국지반공학회와 일본지반공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1년 제4회 지반공학 한일공동 심포지엄'이 7월 5일부터 7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회사 토목사업본부 조현 상무와 토목기술부 임재승 부장이 참석했으며, 토목기술부 정상훈 대리가 부산 지하철 1호선 연장 다대구간 5공구 현장에 적용 예정인 M-CAM(Modified Cellular Arch Method) 공법과 관련된 'New Shallow Tunnel Construction Method in Soil by Using Continuous Pile Wall'이란 주제의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M-CAM 공법은 서울지하철 913공구에 성공적으로 적용된 CAM 공법의 하중 메커니즘을 응용하여 새로 개발한 우수기술 중 하나로 현재 특허출원이 완료된 상태이다. 본 심포지엄 참석을 통하여 한국과 일본의 건설 관련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에게 우리회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며, 지반공학의 다양한 분야(내진설계, 기초, 사면 및 굴착공법, 환경공학 등)의 최신 기술동향 및 연구성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 2011년 협력업체 현장소장 재해예방 안전교육 실시

우리회사는 6월 29일 도시재생전시관에서 2011년 협력업체 현장소장 재해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토목·건축·플랜트 각 현장 협력업체 소장 및 본사 유관부서 관계자 등 66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올해의 안전 슬로건인 'Again! 중대재해 ZERO'의 달성을 목표로 교육일정 소개, 정부정책 주요 변동 사항 및 안전관리 방향, 우리회사의 안전관리 방침과 2011년 재해를 달성목표, 재해분석 및 개선대책,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우리회사는 7월 1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0년 건설업체 재해율 0.10%를 기록했으며, 이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5개사 중 2번째로 낮은 기록이다. **S**